



아름다운 세계 꿈꾸는 원미동 시인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겨울나무를 보면 벌 서는 내가 보여요. 저렇듯 두 팔을 들고 서서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네요. 반성하는 나무는 다시 내년 봄이 오면 언뜻빛 새 생명을 잉태하며 찬란하게 부활하겠지요. 용서하는 일도 참 힘들지만, 용서해주는 마음도 서로를 따스하게 해주는 삶 같아요. '클클하' 더러도 '뜨악한' 일이 있어도 '만수반이'가 되어 주는 일도 괜찮지 않나요?

클클하다: 마음이 시원스럽게 트이지 못하고 좀 답답하거나 궁금한 생각이 있다. (뚱지도 못한 좁은 방에서 그 짙은 얼굴과 늘 낮고 있어 하니 클클하 답도 아니라 정말 견뎌낼 도리가 없었다.) <김익석, 흐름 속에서>

뜨악하다: 마음이 선뜻 나가지 않아 껴뭉치고 싫다. (주막 여주인은 별로 탐탁스럽지가 않다는 뜻. 뜨악한 얼굴로 천 서방 부녀를 가볍게 흘려 보았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마음이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 서먹하다. 또는 사귀는 사이가 떠서 서먹하다. (어란이에게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게 한 후 종삼이와의 관계도 뜨악하고 면목 없어지고 답답기 때문에...) <박완서, 미망>

만수반이: 아주 귀찮게 구는 말이나 행동을 싫증 내지 않고 잘 받아 주는 일. (그는 늘그막에 낳은 막둥이에게도 만수반이 한 번 하지 않는다.) 토속 신앙에서, 무당이 굿을 할 때 한 사람이 소리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서 소리를 받아 하는 일.

인명옥(시인·고양에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양귀자 '원미동 시인'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은 1986년 <한국문학> 152호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연작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에 실린 11편 중 하나예요. 현대 도시 문명 속에서 억압당하고 무기력해져 가는 현대 도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우수 어린 모습으로 그려낸 세태 소설이예요. 부천시 원미동이라는 공간은 도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원미동'이란 문자 그대로 '멀고 아름다운 동네'죠.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름같이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폭력과 방관, 비정함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나이에 비해 매우 조숙한 '나'는 청소년인 아버지와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싸움질 잘하는 원미동 폭풍이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 남들은 나를 첩부자인 꼬마로 알겠지만, 눈치가 빠른 '나'는 집안 사정, 동네 사정에 대해 이것저것 훤히 알고 있는 아이다. '나'에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언니 선숙이 있다. 언니를 마음에 두고 있는 김 반장과 시를 사랑하고 약간 돈 것같이 보이는 몽달씨가 내 친구다. 몽달씨라는 별명을 가진 원미동 시인은 김 반장 가계에 들락거리며 소일하고 있다. 어느 날, 자칭 시인이라는 몽달씨가 '나'를 부르더니 시를 쓰면서, '너는 나더러 개새끼, 개새끼라고만 그러는구나'고 했을 땐 기가 찼다. 김 반장은 가계

집을 하고 있어서 '나'에게 군것질거리를 많이 준다. 그는 선숙 언니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터라, '나'더러 제재라면서 언니 소식을 물곤 했다. 사실 나도 은근히 그가 '나'의 형부이기를 바랐다. 그런데 열을 전 김 반장의 차사한 행동을 보고 난 뒤엔 '나'는 그가 싫어졌다. 엄마와 아빠가 싸움을 하는 사이에 집을 빠져나온 '나'는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슈퍼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사내 불에게 쫓겨 그들에게 맞은 듯

폭력과 방관이 존재하는 비정함 일상화 소시민의 작은 희망 통해 삶의 가치 조명

온몸이 엉망인 몽달씨가 다급한 얼굴로 김 반장에게 구원을 청하나, 김 반장은 그를 모른다고 한다. 꼬피가 범벅이 되어 젊은 사내들에게 끌려가게 되자 '나'는 지를 못 아저씨에게 구원을 청하여 가까스로 몽달씨를 구했다. 그런데 그때서야 얼굴을 내민 김 반장은 몽달씨를 위한 척 안타까워하며 "빨리 가서 잡아야지, 저런 놈들 그냥 두면 안돼요"하고 흥분하면서 청년들을 쫓아가는 시늉까지 하는 것이다. 열을 뒤 몽달씨는 상처가 다 나은 후에 또 다시 김 반장의 가게에 나와 어느 때처럼 김 반장을 거들며 박스를 나르고 있다. 그런 몽달씨에게 '나'는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며 흥을 보지만, 몽달씨는 계속 잔뜩 피우며 시를 읊는다. "다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는 순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 하는 순교자 같다..." 몽달씨는 미치거나 돈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마음이 순수하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었던 것이다.

어수룩한 몽달씨라는 인물을 통해 이유 없이 한 개인이 당해야 하는 폭력의 모습과 함께 이 폭력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김 반장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모순된 사회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개인에게 가해지는 비합법적 폭력과 이 폭력에 대해 아무런 의의도 제기할 수 없는 모순된 사회에서도 또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할 우리들의 동네를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원미동은 비록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폭력과 방관이라는 추한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작고 아름다운 희망 또한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겉보기에는 한없이 어수룩해 보이는 원미동 시인 몽달씨는 김 반장 같은 속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언제나 시를 읊으며 시처럼 맑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몽달씨의 삶 속에는 이 세상 모든 속물들의 더럽고 부끄러운 내면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시'를 통해 관용과 이해로 이를 감싸 안음으로써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애환을 통해 사회의 모순된 구조와 함께 인간의 위선과 나약함을 드러내 보여 주죠. 이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죠.

인명옥(시인·고양에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사상담과 교육문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 e-메일:rollingh@paran.com)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와 싸웠는데, 생각할수록 분해요. 꽤 친한 친구라 생각했는데 항상 시비조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쌓인 것 같아요. 주로 제가 참는 쪽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 얼굴도 보기 싫어요. (ID: 미워할거야)

손잡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우정

친구 마음이 참 많이 아팠겠네요. 싸움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싸움을 통해 서로 가슴 속에 있는 불만을 털어놓고 더 친해지는가 하면 또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도 하니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친구도 그럴 거예요. 그 친구와 싸우기는 했지만 그 친구는 얼마전까지 친구에게 참 많은 의지가 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붙어다니지 않았겠지요.

이 글을 볼 때쯤이면 친구는 그 친구와 싸운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싸움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말걸기가 참 힘들어지거든요. 한 발만 물러서면 되는데 말이예요. 때로는 쓸데없는 자존심, 남의 이복 때문에 소중한 존재를 잃기도 합니다. 살다가 때로는 어려울 때 부담 없이 손 내밀 수 있고, 그 손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우정이 있다면 참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그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한 번 싸웠다고 모두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친구도 친구가 편해서 실수한 부분이 있을거예요. 서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한 번씩 웃어보세요. 그 친구가 있음으로써 즐겁고 행복했던 나날들도 한 번 떠올려보시고요. 친구가 먼저 기분 좋아질만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거제 비룡정사 혜진님)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함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판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판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명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범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냅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방한용털신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부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5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특무명 사계절단화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비서 하실 분 상담 환영

INTERNET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부산: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림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북타불교점 054)655-2525